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33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㉟ blog.naver.com/cityansan
① facebook.com/ansancity3
① twitter.com/ansancityhall
㉟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2월 21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서른 번째 ·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소통이 해답이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16일 안산대학교 성실관에서 열린 '333소통토크콘서트'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2월 16일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300명의 시민과 함께하는 30번째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333 소통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은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민과의 이야기 마당이다.

2014년 7월 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어, 2년 동안 총 30번의 만남을 통해 생생하고 실제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보는, 시민중심 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됐다. 이야기 마당은 소상공인, 근로자와 노동단체, 기업인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종

사자 및 보훈단체 등의 복지 분야, 환경미화원, 자율방범대 및 로보갑순찰대 대원 등의 공공정책 분야, 문화예술인, 청소년, 대학생, 다문화 관계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감을 높여왔다.

이날 진행됐던 '333 소통 콘서트'는 그동안 이야기마당에 참여했던 시립합창단 등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서른 살 안산이야기'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른 살, 청년이 된 안산에게 바라는 점'을 엽서에 담아 보내면, 시장이 이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의견에 "좋은 도시는 시와 시민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를 보면 다년간의 꾸준한 시민교육이 있었다. 안산시에서도 다양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어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

다."라는 의견에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공실된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숲의 도시 안산에 자부심이 생긴다."라는 메시지에 "자주 들려오는 새소리에 자연이 도심 안으로 들어왔음을 느낀다. 숲은 시민의 건강 뿐 아니라, 안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성과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숲 공간,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계획들은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군 제대 후 인생 조언을 묻는 청년의 질문에는

"신념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자신만만하게 걷고 자연스럽게 웃어라!"라고 답하며 안산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웃'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얼굴을 맞대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영진(58세, 사동)씨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담아주는 이런 자리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 시민의 말에 경청하는 시정이 있어 안산 시민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30주년 기념·30번째 만남 300명 시민들과 함께 '333토크콘서트'

대부도 종현마을 전국 어촌체험마을 '최우수'

안산시 대부도 내 종현마을이 해양수산부 주최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5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종현마을은 대부해솔길 탐방, 갯벌썰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문객은 16만8천 명이다.

에너지정책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미세먼지, 원전... 해법 모색한다

안산시를 비롯한 25개 지방정부가 모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한 환경이 위협받고 있고, 잦은 지진 등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하는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후에는 "환경과 사람이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공공형 임대주택 건립 시세 60% 수준의 임차료



단원구 원시운동장 부지에 공공형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반월 융·복합 집적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집적지에는 공공형 임대주택 외에 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센터 등도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임대주택은 180~200가구 규모로 반월산단 청년 근로자들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차료를 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반월산단 내 4차 산업 태동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며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전략관(031-481-3402)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2017년 예산안..“ 경제 활력 최우선”

90블록 매각대금 5천억, 순차적으로 미래가치에 투자

특별회계

일자리 창출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안산시 2017년 예산이 2조6,520억 원 규모로 세워졌다. 특히, 상록구 사동 90블록 매각대금 중 5,000억 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경제 활력에 쏟아 붓겠다는 의지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0블록 5천억’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시 미래가치를 위한 단계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는 사회복지(4,495억) 예산을 시작으로 공공질서·안전(69억), 교육(435억), 문화·관광(548억), 환경보호(591억), 국토·지역개발(360억), 수송·교통(1,124억), 산업·중소기업(172억), 농림·해양수산(148억), 보건(285억) 등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위해 스마트공장 및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에 11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70억 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강소기업 집중 육성에도 58억 원을 투자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념으로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지원하며, 골목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도 1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안산지역 업체와 인력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재투자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지역으로 다시 환원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한다는 선순환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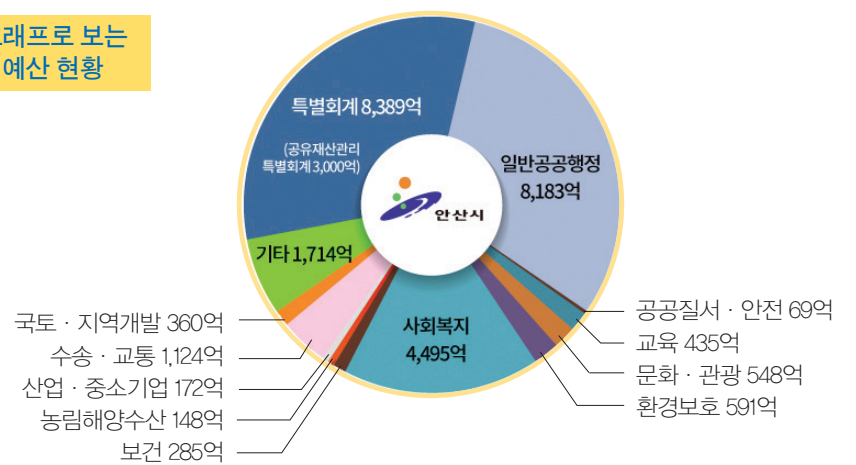
안산의 미래인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집중 투자된다. 지속가능 발전성을 갖춘 생태도

시 조성을 위해 31억 원,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 조성에 32억 원 등이 배정됐으며, 1인당 도시숲 면적을 현재 5.5㎡에서 두 배 가까운 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산의 새로운 가치인 해양생태관광 및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도시 조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 문화와 예술, 스포츠와 전시를 접목한 신 성장동력 확보 관련 예산들도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과 경제 활력 우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로 보는 예산 현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안산, 순위 상승 후 지속 유지... 道5위, 전국10위

“의견수렴 넓히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 강화할 것”

안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7.91점으로 전국 75개 시 중 10위, 경기도 내 5위로 평가됐다.

지난해 전국 22위에서 12단계 상승한 결과, 2년 연속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10위라는 성적표는 안산이 명실상부한 ‘청렴 도시’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도 월등히 앞섰다는 평가다. 인근 시흥, 화성, 군포는 물론 용인, 안양, 성남, 수원 등 주요 도시보다도 청렴도가 뛰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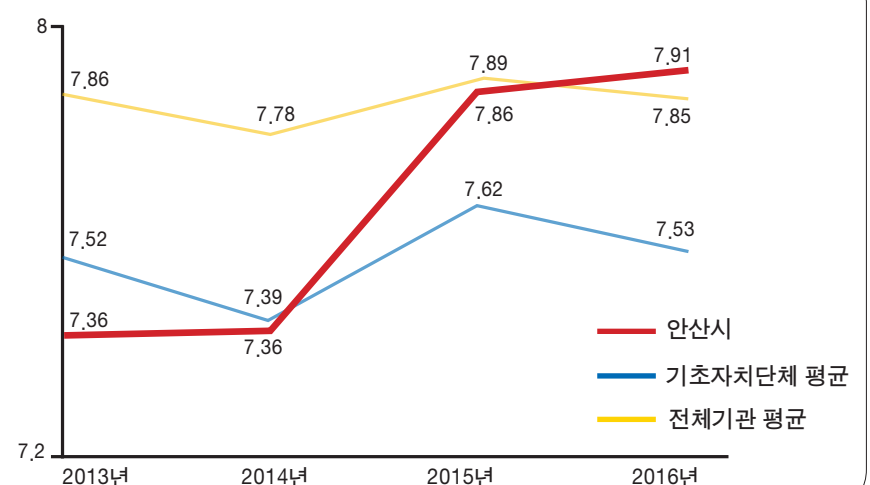
안산시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며, 지역경제와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 공직자들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의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제작·배부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과 공직비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과 새로운 반부패·청렴시책을 마련하여 청렴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한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활성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도별청렴도추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 힘 모아 정부 예산 8천600억 ‘통과’



230개 어린이집, 640명 보육교사, 8천 230명 아동 ‘서비스 제공’

2012년 처음 시행된 후 매년 예산문제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2017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3일 누리과정을 지원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총 3조 9천409억 원 규모로 신설돼 관련 예산안이 국

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중 온전히 ‘누리과정 지원’만을 위해 사용할 예산은 8천600억 원으로, 실제 필요한 2조 원의 45%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누리과정 사업 시행 후 최초로 통과된 정부 예산으로,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우리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11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수도권 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모여 누리과정 예산 관련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누리과정해결 촉구 공동대표단의 수도권 지자체 실무책임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정당 방문을 진행하고 지난 11월 29일에는 2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현재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 230여 개소에서 보육교사 640여 명이 아동 8,230여 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보육계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환영하지만,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한 책임 주체인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보육정책과(031-481-3323)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 정비

매장별 특색 살린 디자인... “거리가 달라졌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구업체들이 밀집되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올 겨울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새롭게 변신했다. 각 업체의 특징을 잘 살리며 통일성을 부여한 간판들로 깔끔하게 변신, 입구부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간판개선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전국 20개소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다. 올해 초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시작된 사업은 간판 디자인 설계 용역을 거친 후 주민동의를 얻고 디자인 시안을 확정, 올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된 간판은 다채로운 업체의 차별성이 드러나면서도 통일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친환경 침대 브랜드에는 귀여운 부엉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던가, 타일 시공 전문 업체에는 타일 모양이 새겨져있는 식이다.

상록수역 사거리 첫 번째 입구에서 흙침대를 판매하는 박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디자인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협의해서 간판 디자인이 잘 나왔다. (전체 공사 일정)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안산시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간판개선 시범 구역을 고시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록수 가구문화거리는 가구할인점과 가구마트, 인테리어 소품매장 등이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어 원스톱(one-stop) 쇼핑이 가능한 곳이다. 특히 모든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 번에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좋다. 또 여러 업체들이 한곳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전국 어느 곳보다 저렴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주말 상록수 가구거리를 방문, 새로워진 간판도 보며 가족과 함께 오래 쓸 가구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 문의 : 도시디자인과(031-481-2403)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안산시민, 교통문화의식 수준 ‘전국 최고’

30만 이상 도시 중 1위… 사망자·사고율 모두 감소

市 “교통선진도시 이루겠다”

안산시가 2016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발표됐다. 인구 30만 이상 그룹 중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했다.

안산시는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및 지자체 노력도 평가 등을 심사하는 평가에서 30만 이상 그룹 중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안산시는 그동안 관할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유관기관과 협동해 매년 30회 이상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수준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 안산시가 전국 1위에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높은 교통문화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교통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상록경찰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 현재 상록구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지난해 21명에서 13명이 줄었으며, 음주운전 사고율도 158건에서 108건으로 3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상습 정체 교차로인 복고개 삼거리에 차선 확대,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신호체계 변경



등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연간 경제적 효과가 36억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차로 통행속도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절감, 물류비용 감축, 의료비용 절약 등의 성과를 냈다는 계산이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교통사고율은 13.7% 감소했으며, 노인 보행교통사고는 25%가 감소했다.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③

패션이자 방한용, 마스크 브랜드 ‘메멘모리’ 에이에스 루츠(AS ROOTS)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건 젊음이 아니잖아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대캠프에 입주한 ‘에이에스 루츠’ 박정우 대표(29세)를 만났다.

생후 1년여쯤 아버지 직업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온 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는 박 대표는 “어렸을 때 느꼈던 안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차츰 바뀌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 제가 안산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마저 생기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안산의 뿌리’라는 의미의 Ansan+Roots라는 팀명으로 청년큐브에 입주했습니다.”라며 안산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정우 대표는 사고로 한쪽 팔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팔을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여겨졌을 때 불현듯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 창업을 만류할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다. 창업 아이템은 마스크, 브랜드명은 ‘메멘모리(Memento-mori)’다. 메멘모리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합성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의미를 차용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패션에 자신만의 철학을 입히다

박 대표는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기도 하지만 힙합이나 스트리트(street) 패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자기표현의 한 요소라는 데 착안했다. 겨울철에는 방한용으로도 착용하는 마스크가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밀어붙였고 결과는 성공적.

그는 은유적 메시지와 자신만의 철학을 로고로 표현한다. 건곤감리, 스마일, 킹 캐릭터, ‘밥 말리’로 대표되는 마리카와 표식 등 독특한 이미지로 고객과 소통한다. 마스크는 이중적으로 겉감에는 패션과 철학을 담고, 안감에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면서도 여성용의 경우 립 스틱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붉은 계열의 버건디(붉은 자주색)로 제작했다.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남녀 사이즈에 차이를 두었으며, 코 패드와 턱받침으로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을 고안했다. 코 패드와 턱받침은 디자인등록을 해 놓은 상태다. 한양대를 졸업했지만 박정우 대표는 디자인 요소가 필

요한 마스크라는 제품을 위해 예대캠프 입주를 신청했고, 디자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청년큐브 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비슷한 경험 속에서 서로 위안이 되어주며 협업이 가능한 공간



박정우 대표

청년큐브에서 이들은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다. “필터링을 거쳐 식약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해 세탁 후 재생이 가능한 패션 방진마스크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건 젊음이 아니잖아요. 될 때까지 해볼 겁니다.”라며 파이팅을 외쳤다.

본오동 쓰레기매립지 부지

유·청소년 스포츠타운 조성... 세계정원 경기가든 ‘예정’



본오동 쓰레기매립지 부지에 들어선 축구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 다목적실 포함

지난 20년간 안산, 수원, 시흥 등 경기도 내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안산시 화쓰레기매립지(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에 ‘유·청소년 꿈나무 스포츠타운(이하 스포츠타운)’이 들어선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6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로 이후 안정화 기간을 거쳤으며 2015년 5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안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축구장과 야구장, 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 ‘유소년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사후관리 종료를 앞둔 2011년부터 쓰레기 매립지 활용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유소년 축구장 건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2013년에는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으로 선정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받았고, 2015년 6월에는 경기도로부터 매립지 전체 면적 49만㎡ 중 7만㎡에 대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유소년스포츠타운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인근 장화운동장(사2동 1502-1번지)에 유소년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다목적실(체육관)을 건립하고, 매립지 내에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경기도에 야구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축구장은 인조 잔디 신설 2면(유소년 기준 4면), 인조 잔디 신설 1면(중형 축구장)과 조명탑, 주차장 등의 시설이 준공된 상태다. 유소년용 실내다목적실은 12월 중에, 지역주민용 실내다목적실은 내년 5월에 착공한다. 한편 야구장은 지난 8월, 매립지를 정원으로 개발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인근 안산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까지 합쳐 111만㎡로 조성될 계획으로 메인 정원과 광장, 전망대, 환경교육시설, 체육시설, 숲속 놀이터 등을 조성해 관광, 체험 그리고 놀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산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경우 야구장 부지의 변경여부를 검토한 후 7월경 공사에 착수해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5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주민 스스로 찾아가는 복지, 마을을 주목하라”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지역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예전처럼 이웃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만큼 좋은 복지가 없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복지기관 및 시설종사자, 의료인, 자영업자, 주부, 통장 등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마을 안에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대상자도 찾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

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시에서는 사1동, 부곡동, 원곡1동, 선부1동 등 4개동이 시범 사업을 운영했으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상반기 8개동(일동, 이동, 본오1·2동, 월피동, 와동, 선부2·3동)과 하반기 13개동을 추가적으로 구성, 안산시 모든 동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12월 9일에는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발전방안을 찾는 워크숍을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룸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25개동 협의체 위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복지, 마을을 주목하라’라는 특강과 7개동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우수사례 특화사업부문으로 부곡동(사랑의 수세미 뜨개질 나눔), 선부3동(반찬나눔), 와동(도시락지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보호체계구축 부문으로 본오1동, 사1동, 월피동, 선부2동의 발표가 이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마을의 복지에 대해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마을 리더를 발굴해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의 복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 문의 : 복지정책과(031-481-3021)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민, 광화문 촛불집회를 가다

촛불이 끌어올린 세월호...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사상 처음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던 지난 3일 촛불집회. 이날 행진의 선두에 선 사람들은 304명 세월호 희생자의 얼굴이 그려진 망토를 두른 유가족들이었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날 수 있었던 그 길. 이날 청운동, 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가던 유가족들은 한참동안 오열해야만 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세월호 참사는 다시 국민적 분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 때마다 세월호를 상징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진행됐다. 세월호와 종이인형을 등에 태운 거대한 고래풍선이 촛불을 든 수많은 인파 위를 위로하듯 떠다니기도 했고, 광화문 광장 바닥에는 노란리본을 단 304개의 구멍조끼가 놓이기도 했다.

해가 지자 구멍조끼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LED 촛불이 하나씩 놓였고, 푸른 고래 등 위에도 304개의 등이 켜졌다. 이날 촛불집회의 시작을 열었던 것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였다. 무대에 오른 은화엄마 이금희 씨는 “최소한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은화를 보내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어 “아직도 세월호는 바다 속에 있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것,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으로 갈 수 있는 증거를, 생존자에게는 친구가 돌아오는 것,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저녁 7시 정각에는 1분 동안 소등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광장 구석구석을 메우던 촛불들이 한꺼번에 꺼졌다가 파도처럼 다시 켜지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작은 촛불들이 함께 모일 때 거대한 파도가 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이날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에 등장한 햇불의 숫자는 모두 416개였다. 참사 당일 날짜를 의미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 앞서, 유가족들은 통인동 카페 앞에서 빵과 핫팩(hot pack) 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노란색 점퍼를 입고 빵과 함께 작은 희망을 건네주던 유가족들 뒤로 크게 써진 글귀가 반짝였다. “이제 한걸음! 우리 지지치 않는다. 우리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엄마 아빠는 촛불과 함께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세월호 시민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416안전공원’

안산시추모사업회(이하 추모사업회)가 주최한 416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0일 토요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나이, 성별, 거주지에 따라 선정된 시민과 고등학생 250명이 토론자로 나서 추모시설의 형태와 내용, 규모, 입지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안산시민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학교가 안산에 있어, 안산이 주 생활권인 이들도 토론자 선정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시간 동안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동영상 시청과 한국조경사회 최종필 감사의

국내외 추모시설 비교분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토론회는 416안전공원의 비전과 가치, 형태와 내용, 부지선정의 기준 등에 대한 조별토론과 전체발표로 진행됐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250명 토론자... 추모시설 형태, 입지 조건 ‘논의’

휴식공간으로’ ‘안산을 상징하면서’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지조건으로는 접근성, 상징성, 주민 편의성, 경제성 등의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토론자 서인정(일동) 씨는 “아직도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가족과 시민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오늘 나온 많은 의견이 반영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모사업회 관계자는 “참사를 잊지 않고 추모시설에 관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416안전공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데 깊은 사명감을 느꼈다.”고 했다.

◇ 문의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031-481-3318)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지역,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전국 최고’

고잔푸르지오3차 · 상록수현대1차 ‘최우수’ 수상 전체 수상 아파트 10개 중 5개가 안산... 에너지 선도 도시 ‘우뚛’

안산시가 전국 아파트 단지 중 에너지절약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한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평가 결과,

500세대 이상 단지 중 최우수상은 안산 고잔푸르지오3차아파트가, 500세대 미만 최우수상은 안산 상록수현대1차아파트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분에서 전국 6개 단지 중 안산시의 3개 단지(보네르빌리지, 신길휴먼시아2단지, 양지마을)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아파트 선정 기준은 계량 부문(60%)에서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률과 비계량 부문(40%)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정책 참여 노력도와 활동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 2월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2030 에너지비전’ 선포 등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노력들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의 전국적인 모범으로 탄생한 안산 지역 아파트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500세대 이상 최우수



고잔푸르지오 3차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주민의 참여로 일군 성과”

고잔푸르지오3차아파트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2015년 탄소중립프로 그램 성과대회 공동주택부분 전국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2016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 공모사업에서는 500세대 이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잔푸르지오3차는 입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를 방문해 각종 에너지 관련 척도를 점검하는 ‘에너지 진단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등행사(암흑체험),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린콘서트 및 에너지 장소 견학,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49세대, 각 250W)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520개), 공용부분 LED 전등 교체(480개), 승강기 내부 LED 등기구 개선,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234.52KW)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약 6천여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입주자 대표 최창영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부문에 관심이 많은 안산시가 적극 지원해줘서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 시범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타지에서 견학을 와 안산시의 에너지 절약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세대별 에너지 절약 의식도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것에 고치지 않고 데이터 관리를 잘해 꾸준히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어려서부터 에너지 절약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생들 대상의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대표 최창영 회장



500세대 미만 최우수



상록수현대1차

매월 1일 저녁 소등행사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 91% 참여”

상록수현대1차아파트는 단지 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매월 1일 저녁 소등행사에 나선다. 소등률이 평균 91%에 달할 만큼 참여율이 높고 에너지 절감에 관해 주민의 관심이 높다.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최부월 사2동 에너지절약추진협의 회장은 “처음엔 소등행사에 항의하는 주민도 많았다. 그래서 단지에 사는 청소년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찾다니며 협조를 구하면 기특하게 바라보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부모들의 참여도 이어져 좋다. 재활용이 있는 날이면 동아리 회원들이 천연비누, 에코캔들(eco candle)을 만들어 주민을 직접 만나 에너지 절감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며 나

뉘준다. 자연스레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는 주민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에너지 사용 진단과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며, 에너지 관련 주민동아리도 운영하고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공동주택단지 탄소사냥대회 등 다각적인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최부월 회장은 “이런 활동들이 이어져 아파트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자 주민들도 적극 호응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 서포터즈와 경비 대원에게 특히 감사하다.”고 했다. 현대1차는 이후 낡은 승강기를 절전형 승강기로 교체해 에너지 절약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 최부월 회장



500세대 이상 우수



신길휴먼시아2차

“지하주차장 조명 LED로 교체…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적극 참여”

총 882세대 최고 15층 12개 동으로 이뤄진 신길휴먼시아2차아파트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사용 저감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차명희 관리소장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단지 안의 지하주차장 조명기구를 상대적으로 전력소모가 적은 LED조명으로 바꾼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를 운영해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왔다.

특히 에너지 상담사는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단지 내 청소년들은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와 같은 캠페인에 나섰다.

아파트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로 경로당과 각 동 출입구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는 비용 1천8백만 원과 경로당의 노후 가전 TV,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중에서 1개를 신제품으로 지원받는다.”고 했다.



500세대 이상 우수



보네르빌리지

“에너지 절약 활동은 마을 축제 …

소나무 49만 그루 심는 효과”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보네르빌리지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이 낮았던 지하주차장의 형광등과 유도등, 공동 현관의 센서등과 직부등, 승강기의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로 교체했다. 이어 세대 베란다에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764개의 옥상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2016년 276,300kwh 누적 발전량을 달성해 연 33,027,403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 117.1톤을 감소시킨 것으로, 소나무 약 49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또한 절약교육, 청소년 봉사대 홍보교육, 작은 음악회, 한마을

축제 등을 열어 에너지 절약 공동체意識의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한마을 축제는 입주인 공동체들의 공연으로 이뤄진 작품발표회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를 마을의 축제로 승화시켜 입주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에 98.3%라는 높은 주민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조현식 기전과장은 “고효율 장비로 인해 시설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으로 CO₂ 감소량과 에너지 절감비용을 확인합니다. 입주주민들과 함께 49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 같아 의미가 큼니다.”라고 전했다.

입주민 이인숙 씨는 “복도에 붙은 건강계단걷기 홍보판을 보고 일부러 승강기를 타는 대신 걸어 오르기도 했어요.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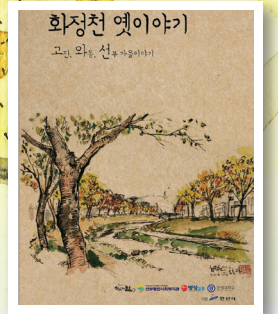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힐링센터 0416 쉼과 힘

동네 어르신들이 말하는 ‘화정천 옛이야기’

김용호 화백, 바다와 땅이 만나는 아름다운 안산 그림 ‘수록’



화정리 고개 넘어오기 전 삼신우물. 신성한 우물에서 자손을 점지해 달라, 집안을 번성해 달라, 아픈 사람 낫게 해 달라, 빌고 빌었던 그 삼신우물은 화정천의 시작이다. 삼신우물에서 20리가 넘는 그 길에 서해 바다로 가는 화정천이 흐른다... 지금은 화랑유원지라 불린다. 그 길이 화정천 길이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 ‘힐링센터 0416 쉼과 힘(이하 쉼과 힘)’이 동네 어르신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화정천 옛이야기-고잔동, 와동, 선부동 마을 이야기’를 펴냈다.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30년생부터 50년생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아 발간한 이 책 ‘화정천 옛이야기’에는 옛날 사진과 함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김용호 화백이 재능 기부한 그림까지 곁들여 구성했다.

사리포구 시절부터 “바다와 땅이 만나는 아름다운 안산을 그림으로 남겨야 한다.”

고 생각했던 김 화백은 이번 옛이야기 작업에 인터뷰, 지리조사, 역사학자 고증을 거쳐 14

점의 작품을 수록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학교가 생기기 전에 마을 아이들이 다니던 ‘웨슬리 구락부’ 이야기, 114년 된 화정교회와 꽃우물 마을의 500년 역사 등이 담겼다.

12월 9일, 이야기책 발간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화정천 고두물 마을, 와동 왜두돌기 마을, 고잔리 마을이야기를 들려주는 북 콘서트를 가졌다.

“셋별이 쇠고뿔쫓 한 거리만큼 마산에 걸쳤을 때 종을 치곤했지 뭐유...” 김종길 어르신(79세)은 시계가 없던 때에 새벽종을 쳤던 이야기와 일제강점기 종을 가져가려던 일본군사들을 막아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광규(81세)·김종덕(84세) 어르신은 고잔리, 적금리, 절골마을에서 나고 자라며 공부하고 전쟁을 치렀던, 능곡에서 안양 가는 신작로 길에서 안부를 묻던 동네, 사람만 겨우 지날 수 있었던 작은 길이 버스가 다니는 대로가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쉼과 힘’ 임남희 사무국장은 “푸근한 마을로 기억되고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전해졌다. 마

을 가치를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 옛이야기 발간과 북 콘서트는 마을 문화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의 첼로 소모임 ‘소리 앤 리멤버’, ‘가족오케스트라’, 평균나이 82세인 ‘어르신청춘합창단’의 공연과 엘림하우스 4층 야외테라스에 조성된 ‘소생의 정원’ 개장식이 함께 열리며, 송년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용호 화백의 ‘화정천 옛이야기’ 그림이 전시된 소생의 정원은 고잔동 이웃들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전시·공연·성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어둠이 스미고, 정원 한가운데 소생의 나무 위에 꾸며진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에 불이 밝혀지자,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의 메시지가 적힌 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2-9 김혜선 영원히 빛나거라”, “권순범,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의 사랑 하늘아 들어!”

◇문의: 힐링센터 0416쉼과 힘(031-480-007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김종덕 어르신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

“소통으로 유대감 형성... 공동체적 삶을 꿈꾸다”

정신 계승, 가치 확대 · 재생산하는 방법 고민할 때

‘제4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이 12월 9일 최용신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용신 선생의 생애와 활동에만 한정되어 있던 기존 논의를 ‘소통으로 공동체적 삶을 꿈꾸 최용신’으로 넓혀 ‘최용신과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됐다.

독립기념관 김형목 선임연구원은 “최용신 선생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은 오늘날 다시 빛을 발한다.”며 “선생의 농촌계몽운동은 문맹퇴치나 농가부업 증대 등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는데 한정되지 않았고, 소통으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했다. 서종원 한양대 교수는 아동을 중심으로 최용신과 마을공동체를 바라봤다. “당시의 아동들은 마

을 공동체적인 면에서 주요 대상은 아니었지만 최용신 선생은 아동에게 관심을 가졌고, 당시를 살았던 샘골의 아동들은 선생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으며 힘든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윤유석 문화콘텐츠학 박사는 최용신 선생의 “여러분의 자녀인 이 어린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이들이다. 다만 가르치지 못해서 흠 속에 묻힌 옥처럼 광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나라의 보배이자 큰 일꾼’인 아이들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최용신 선생의 샘골강습소 활동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는 문해교육과 닮아 있다.”고 말

했다.

정지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연구원은 “최용신기념관 소장품 수집정책이 물리적 자료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유품의 영구보존과 전시, 묘역을 정비하는 것 이상의 최용신 정신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제4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 학보로 발간되어 전국 도서관에 배부될 계획이다.

◇문의: 최용신기념관(031-481-304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산시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지난 10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이하 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시는 1990년대 이후 안산스마트허브를 축으로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현재 8만3천여 외국인인과 5천600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를 개소해 결혼 이민자와 근로자에게 편중되어 있던 복지 대상을 이주 2세인 자녀들까지 넓혔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전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로 변경·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안녕 공동체',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문제 해소와 검정고시 학력 지원을 돕는 '꿈다리 상담실', 문화와 언어적 이유로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공교육 이탈 청소년을 위한 '꿈빛 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은이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장은 "청소년 가정애 적합한 사례관리 실천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031-599-1770)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문화체험에 앞장서는 안산서초등학교

인형극으로 보는 동화 이야기 공연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들어오니 웅성웅성하던 학생들이 무대에 집중하며 실내가 조용하다. 주인공 인형들이 등장하자 이내 함성이 들린다. 완벽하게 갖춰진 공연 분위기에 학생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안산서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관람하는 인형극을 선보였다. 인형극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함성' 참여 어머니들이 12월을 맞아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극화하여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인형극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는 위기에 처한 늑대

를 보살피는 돼지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결국 늑대가 감동한다는 이야기로, 어머니들의 실감나는 목소리와 연기 덕분에 학생들은 재미있는 동화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모여 연습을 했다. 무대와 인형 등도 모두 '책함성' 어머니들이 직접 꾸리고 만들었다. 내레이션부터 인형극의 실감나는 목소리까지 모두 손수 해내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어머니들은 "문화 예술 체험을 못하는 소외 계층의 학생들도 인형극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1~2학년 학생들은 "인형극 공연을 보니 그림책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예쁘고 신기한 인형들과 크고 멋진 무대배경이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서초등학교(031-487-4550)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12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



왜 맛있는 건 다 나쁠까?

저자 오세연 / 출판사 웅진주니어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먹거리의 진실을 파헤치치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성장시켜주는 행복한 건강 수업을 담았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아이들과 닮은 친구들이 등장하는 체험 동화를 통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야말로 정말 맛있는 음식임을 일깨우는 밥 처방전을 내준다.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의학이야기

저자 이은희 / 출판사 살림FRIENDS

1901년부터 114년에 이르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에서, 과학사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나 의미 있고 관심이 높은 2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익숙한 주제를 선별하여, 생리학, 병리학, 유전학 등 여러 분야의 의학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쾌한 문체로 풀어냈다. 신념을 관철시킨 과학자들의 드라마틱한 사례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헬스의 정석

저자 수피 / 출판사 한문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만들기의 정석을 소개한 책으로, 네이버 파워블로거 '수피'가 헬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몸, 운동, 영양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운동과 다이어트의 실전 팁까지 두루 담았다. 이 책은 생리학을 기초로 운동과 영양 섭취가 우리 몸에 작용하는 원리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준다. 꼭 알아야 할 헬스 상식을 엄선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봉사동아리 '따숲네'

"함께하니 더욱 좋은, 우리는 이웃"

딱딱한 살림살이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늘 걱정스럽다. 자주 드나들며 살피주는 자식이나 이웃이라도 있다면 좋으련만, 찾아오는 이도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는 몸 추운 것보다 마음 추위가 더욱 힘들다고 한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다. 그런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 봉사동아리 '따숲네'를 만나고 왔다.

'따숲네'는 드림스타트나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아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방문하여 청소를 포함해 집안 곳곳 불편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가정이 여력이 없거나 치워줄 이가 없어 방치된 경우로, 묵은 짐들을 버리고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침 아홉 시부터 시작해도 저녁때가 다 되어야 끝날 때가 많다.

'따숲네' 회원들의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 곳곳에서 전문가의 솜씨가 발휘되기도 한다. 낡고 위험한 전기배선을 교체하는 것을 물론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맞춤 선반 제작 등 가구수리까지 한다. 또한 창문에는 에어캡(일명 뽕뽕이)을 붙이고, 밀반찬도 살뜰히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최근에는 회원들이 모여 김장을 담근 후 그동안 찾아갔던 가정을 재방문해 김치를 전달하기도 했다.

환한 미소로 회원들을 반기던 이옥선 할머니는 "내가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이 제일 마음 따뜻하고 행복해요.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따숲네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야."라며 활짝 웃었다.

회원들은 이런 순간에 보람을 느끼고 힘든 것도 다 잊게 된다고 하며, 더 많은 이들이 이런 기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은철 동아리회장은 "힘들다는 것보다 감사와 보

람이 더 많다.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도 안타깝지만, 부모가 있는데도 방치된 환경에 처한 아이들도 있다. 앞으로 그런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도 계획하고 있다."며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따숲네'와 함께 할 좋은 이웃의 참여를 기다린다.

◇문의 : 정은철(010-3606-351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 봉사하고 있는 '따숲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랑의 몰래산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특정 종교를 떠나 모두가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에도 함께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소외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웃을 찾아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할 '2016 안산 사랑의 몰래산타'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청년단체 '안산새사회연대 일대(이하 일대)'가 꾸려가는 '몰래산타'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다.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꿈을 잃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 따뜻한 정을 나누어 왔다. 산타가 찾아 갈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한다.

'일대'는 '몰래산타' 활동에 앞서 예비산타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산타학교도 진행했다. 이웃에 대한 충분한 공감, '몰래산타' 활동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의 참여도 이어졌다.

산타학교에서 만난 최윤희 학생은 "몇 년 전 우리 집에도 사랑의 '몰래산타'가 왔었는데 그때 동생이 무척 좋아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산타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송미 총괄팀장은 "어르신들은 찾아가서 이야기만 들어줘도 좋아하시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몰래산타'가 오래되다 보니 활동을 하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이들도 많아졌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잊지 못해 계속 산타 활동을 하겠다는 회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산타학교가 끝나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본격적인 '2016 안산 사랑의 몰래산타' 작전이 시작된다.

◇문의 : 안산새사회연대 일대(031-411-615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선 '몰래산타' 청년들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

통장협의회회장 초청 간담회… 지역 현안 청취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사진 가운데)이 15일 안산시 각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안산시 각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각 동에서 민관의 가교로서 시 행정의 실패 역할에 하고 있는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안산시 통장협의회 회장 22명과 시 자치행정과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통장들의 활동상 애로사항과 지역 현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한 통장협의회 회장들은 현 통장 70%가량의 임기가 내년 9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연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적십자 회비 납부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동 순위가 노출돼 부담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장들은 이 밖에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나 미처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

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이민근 의장은 이날 제기된 의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근 의장은 “통장임기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적십자 회비는 통장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각동의 현안도 충분히 파악한만큼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근 의장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의장실에서 안산시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바 있다.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내실 있는 심사 위해… “현장 속으로”



단원구 풍도를 방문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모습.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화)는 지난 5일 선부다목적체육관 건설 현장과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선부다목적체육관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는 주차 면수와 수영장 규모, 지역내 건설 장비와 인력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등을 점검했으며, 단원구청 공사 현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 합당한가와 공사의 설계 변경 여부, 주차장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성실 시공을 당부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홍순목)는 대부북동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과 관련해 낮은 임대료와 환경부적격 사항 등을 지적하고 이어 풍도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해서는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바이오플렉스 새우양식단지를 찾아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보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동수)도 지난 2일 단원구 풍도를 방문해 섬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의회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

도시재생 페스티벌 참관, 지향점 모색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자립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참관하고 있는 박은경, 전준호, 나정숙 의원(왼쪽부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대표의원 전준호)’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도시재생 굿마켓 페스티벌’에 참석해 도시 재생과 관련한 타 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전준호, 나정숙, 박은경 의원이 참여했으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관에서 열린 ‘자립방안 모색 토론회’를 방청하고 서울 도시 재생 지역 13곳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둘러봤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지역 자립 실태와 현장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된 자립방안 모색 토론회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 성공의 열쇠인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등 선진 사례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어 서울 13개 도시 재생 지역에서 자립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도시 재생 제품 판매 부스를 돌아보며,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노하우와 성과를 체험했다.

전준호 대표의원은 “올해 초부터 도시 재생 사업의 지역 접목을 위해 관련 연구를 벌여왔던 연구단체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타 시의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며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번 참관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땡그랑 땡그랑... 세상을 데우는 종소리”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밀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구세군 자선냄비!
땡그랑 소리에 지갑을 열면,
누군가의 마음속엔 따스함이 깃든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광장도 불을 밝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덩달아 춤을 춘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안산눈썰매장, 22일 개장... 2월까지 운영

“가까운 도심에서 신나게 겨울을 즐겨요”

겨울이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올라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던 동네 꼬마 녀석들이, 꿈꿨던 눈 위에서 얼음을 지치던 코흘리개들도 생각한다.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연을 만들어주며 손자들에게 헛기침하던 할아버지와 나무로 만든 썰매에 날렵한 날을 달아주던 아버지가 떠오르는 계절이다.

세월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지만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꼬마 녀석들은 변함이 없다. 아이들이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로는 눈썰매장이 제격이다. 이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거리에 안산 눈썰매장이 있으니...

초지역 뒤편에 위치한 안산 눈썰매장이 12월 22일 개장한다.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운영하는 안산썰매장은 교통이 편리해 수원, 시흥, 광명 등 인근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눈썰매장은 16,500㎡ 부지에 일반 슬로프(140m×40m), 유아용 슬로프(60m×20m), 손썰매장(10m×20m)과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치기 기차, 트램펄린, 우주선 등 놀이시설을 갖췄다. 무빙워크를 타고 슬로프 꼭대기로 이동할 수 있으며 키 120cm 미만 어린이는 유아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

입장료는 성인 7천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4천 원이며, 놀이기구와 빙어 잡이 체험은 별도의 요금을 받는다. 20명 이상 단체는 평일 사전 예약 시 선착순 500명까지 입장료 50%를 할인해 준다. 12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슬로프가 중단된다.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150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몽골텐트 휴게실과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 문의 : 안산 눈썰매장(031-8085-744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칼럼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역할 재조명 !

서해안권 융·복합 클러스터의 핵심거점화 필요



최근 시흥시와 광명시에 대한 두 가지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광명·시흥에 2022년까지 축구장 300개 규모(205만 7,000㎡)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단지와 레포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산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의 산업확대 양상과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안산시의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향후 안산시 산업경쟁력 확보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산시는 어떠한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서해안권의 융복합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지역으로의 비전 설정과 이에대한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시의 경우 신안산선·소사~원시선·수인선·인천발KTX 정차역 등의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고 특히, 2023년 신안산선 개통은 접근성 향상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안산시의 산업구조가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업종이 첨단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기존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창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기존 제조업군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안산시 미래성장동력산업군과 연계된 앵커기업 및 연구개발(R&D)시설의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자율주행차, 드론·로봇, 빅데이터, 조선해양, 바이오·메디컬 중심의 첨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3년 경기도내 8.50%의 비중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흥시·화성시·용인시 등 인근 주요도시의 산업성장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와 그동안 안산시 경제를 떠 받쳐오던 전통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내 여건속에서 상기 언론보도는 안산시가 미래의 산업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Ansan Science Valley)라는 혁신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첨단산업 육성 내지는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기존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는 200여 개의 기업이 분포하고 있으나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몇 안되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며 안산시 미래성장동력 산업군과의 연계성도 높



황 중 호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독자
기고

안산의 아버지들, 힘내세요



식탁에 올려져 있던 신문을 집어들며 TV를 켜는 순간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근처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절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야, 00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했는데 어디 취직 자리좀 없냐?”

쑥 되짚어 보니 이 친구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가 되었다.

“금년 2월에 졸업했거든.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취직이 어렵네.”

친구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아들의 적성에 맞는 언론사나 출판사, 기획사, 사보 편집실 같은 데를 찾아 봤지만 이력서를 수십군데 내도 안되더라며 낙담을 했다. 한두명 뽑는 경쟁에 수백명씩 물리는건 기본이라니... 하지만 나도 뽕족한 수가 없어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편치 못한 마음으로 이 시대 ‘아버지’라는 자리에 대해 생각해 봤다.

IMF초차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낸 대한민국 역전의 아버지들이었지만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자식의 취직이 걱정되어 밤 늦게 취업자리까지 부탁해야 하는 아버지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없이 축 처진 어깨와 몇 올 남지 않은 머리

카락, 그래서 그런 풍상을 겪는 우리 아버지들의 곧았던 척추는 구부정해졌고 넓고 단단했던 등은 왜소해졌다. 힘 빠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또다시 보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비록 자신감 있고 당당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세상의 거친 바람에 가족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가장으로서의 고독감과 책임감은 여전히 등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자식은 꼭 꿈을 이루기 바라며 기러기 아빠라는 이름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혼자 힘들지만 기러기 아빠보다는 펭귄 아빠, 독수리 아빠가 되고 싶어 처진 어깨를 추스려 올리며 오늘도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다. 힘들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전망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지”하면서 몸부림이다.

그래서 오늘도 외쳐 보는 한마디는 “어쨌거나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이다.

아침 일찍 나서보면 직장으로, 가게로 나선 안산의 아버지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전철역, 버스터미널, 대학가, 산업단지 등 어느 곳 하나 치열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저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 안산의 아버지들. 저녁때는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피곤한 내색 한 번 안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등을 한번쯤 어루만지면서 “힘 내세요”라며 위로의 한마디 전하는 건 어떨까.

● 강석훈(상록구 고목로7길)

안산시에 하고 싶은 말! 말! 말!



안녕하세요. 저는 본오동에 20년째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년 전부터 4.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 큰 차를 세우기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통 본오동 한양아파트를 지나는 큰 도로에 주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기 일쑤입니다. 저희는 주정차 위반 단속 정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유료 시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용할 것입니다.



먼저, 영업용화물차는 관련 규정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

한 걱정 부지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노외주차장의 환승(한대역, 중앙역, 고잔역, 안산역 등)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산시 대중교통과



길고양이 TNR을 도입하여 인간과 길고양이들만이라도 서로 공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어나는 개체 수에 따라 사고도 빈번합니다. 2차 3차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고양시 등 다른 일부지역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양쪽에 일어났던 피해를 많이 줄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도 오갈 곳 없는 이런 동물들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유기 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296-0124, 부곡동 소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2KG이상)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TN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 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산시 생명산업과



팔곡일동 반월저수지 하류 쪽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현재 반월저수지 상류쪽은 도로가 잘 되어있으나 하류쪽

은 산업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너무 부실하고 도보 및 차량운행이 어렵습니다. 반월저수지 하류에서 산업도로와 연결되고 안산으로 가는 도로를 개선 또는 신설하면 반월의 교통정체 해소 및 반월천의 환경개선으로 반월천은 안산시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개선을 요청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중로3-37호선)로 지정된 노선으로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중이나 동지역의 노선은 단계별 집행 계획상 2단계 구간으로 2020년 이후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안산시 건설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모금기간 2016. 12. 1 ~ 2017. 1. 31
- 대 상 25세 이상 75세 미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권장금액 10,000원 (세대주)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일 시 2017. 3. 2 ~ 4. 27(화, 목 10:00~17:00)
- 교육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여성가족부 인증교육)
- 모집인원 25명 (선착순모집) / 유료교육
- 문 의 신인해 상담원 / 문 의 031) 415-0118
홈페이지 www.helpwoman.co.kr 꼭 참조하세요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접수기간 2016. 12. 23 ~ 2017. 1. 5
- 지원자격 경기도 지역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경기도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공모분야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 접수처 안산시청 자치행정과(481-3095)
- 사유 철새(야생조류)에 의한 탐방객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어린이가 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챙겨주세요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2배 상향 (3만 ▶ 6만원)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16.11.30 ~ '17. 2. 28 (3개월간)
- 단속항목
 - 13세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01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02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어린이용 안전띠·부스터 등 보호장구를 사용에 주세요

03

카시트는 뒤보기형이 더 안전합니다

04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